

제4실 | 집기류 | 전시해설

N-88 나전 봉황 원무늬 다리 달린 케

중국의 케는 수납 용기로, 다리가 달려 몸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표면에 검은 옷을 칠하고 나전 기법으로 원 모양의 봉황 무늬를 표현했습니다. 옷의 검은색과 나전의 흰색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N-90 상서로운 꽃과 나비, 새를 금과 은으로 그린 칠피 상자

칠피 기법으로 만든 상자의 뚜껑입니다. 표면에는 금분과 은분을 사용해 꽃과 넝쿨무늬 등을 그렸습니다. 뚜껑의 표면에는 나비가 측면 중앙에는 두 마리의 긴 꼬리새가 화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N-91 칠피 상자

뚜껑이 몸체를 완전히 덮는 형태의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동물의 피혁을 나무 틀에 대고 상자의 형태를 만든 후 삼베를 씌워 그 위에 옷칠을 덧칠하는 칠피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칠피 기법은 나라시대에 성행했으나 변형되기 쉬워 헤이안시대 이후 쇠퇴했습니다.

N-116 히토리미즈토리타마(구슬)

가마쿠라시대 호류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작품과 이시나토리타마(N-117)는 쇼토쿠 태자가 유소년기에 즐겨 가지고 놀던 물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물 모양 끈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장신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N-117 이시나토리타마(놀이용 구슬)

히토리미즈토리타마(구슬, N-116)와 함께 쇼토쿠 태자가 즐겨 가지고 놀던 물건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는 굴룬무늬 조칠 합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불분명하지만, 주사위 놀이 등의 게임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N-118 꽃 모양 접시

낮은 굽이 달린 여섯 잎 꽃 모양의 작은 접시입니다. 동으로 주조하고 표면을 도금 처리했습니다. 안쪽에는 투명도가 높은 옷으로 칠하였습니다. 에도시대 말기의 문헌에 따르면 히토리미즈토리타마(N-116)가 이 접시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N-92 높은 등잔 받침대

둥근 반사판 중앙에 있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철제 고리에 등잔을 올려서 사용했던 조명 기구입니다. 반사판에는 빛을 반사하기 위해 하얗게 칠한 흔적이 있으며 옆드리고 자는 어린아이 등 세 명의 어린아이를 그려넣었습니다.

N-86 물떼새 마키에 서안

서안은 서책과 벼루함, 종이 등을 올리는 작은 책상입니다. 윗면에는 모래사장에 소나무와 날아다니는 물새 등을 마키에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도안의 다른 작품을 통해 유명한 와카(일본의 정형시)의 배경인 명승지를 표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N-78 벼루

N-79 벼루

벼루는 글씨를 쓰기 위해 먹을 갈고 쌓인 먹물을 붓에 묻히기 위한 도구입니다. 두 작품 모두 도제로 먹을 가는 면에는 물결 무늬가 보입니다. 옷칠한 나무틀과 함께 N-79는 쇼토쿠 태자의 소지품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N96~N98 발루 바늘통

물레 돌리기로 원통 형태의 뚜껑과 몸체를 만든 상아제 용기입니다. 새와 짐승, 풀, 꽃 등의 무늬를 발루 기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발루란 색을 물들인 상아 표면을 칼로 튕겨 내듯이 조각하여 무늬를 하얗게 표현하는 장식 기법입니다.